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출석해야 하나요?

그럼, 여러분 다시
저에게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의 큰 질문(big question)에 대해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 큰 질문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출석해야 하나요?’ 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몇 가지
운동경기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미국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큰 야구경기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관람석에 있고,
저만 경기장에 있습니다. 제 손에는 야구배트가 있네요.

이렇게 잡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대한 그라운드에 서있고, 게임의 승부는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마지막 세 볼에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볼이 저에게 던져졌고,
저는 놓쳐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치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볼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마음 좋아죠? 긴장되지 않으세요?
마지막 볼입니다. 그 마지막 볼이 제 쪽으로 옵니다.

제가 쳤습니다. 공이 날더니,
날아갑니다. 저는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빠르게 달립니다.
계속해서 달리고 달려서, 슬라이딩해서

저를 아웃시키기 바로 직전에 들어옵니다.
저는 너무 기뻐합니다.

환호성을 치고, 관람석도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홈런을 쳤거든요.

모두가 일어서고, 너무나 기쁘는데,
심판이 스피커에 대고 큰소리로,

‘무효입니다. 아웃입니다.’
우리는 놀라,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방금 들어왔잖아, 분명히 모두 돌았는데,
그리고 홈런이 분명했잖아.

공을 치고,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근데, 심판은 아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아웃이죠?’라고 묻습니다.
심판은 ‘첫 베이스를 놓쳤습니다.’

2, 3, 4 베이스를 뛰었지만,
첫 베이스를 놓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당연히 아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공을 치게 되면,
첫 베이스를 먼저 밟고,

2, 3 번째 베이스를 거쳐서
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곧바로 두 번째 베이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웃입니다.

이 예화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베이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이스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베이스를 놓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서는 흔히
교회를 출석하거나,

교회의 사람들이 그저 좋아서,
따뜻하고, 친절해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예화가 생각나시죠?

그저 하나님의 사람만 만나면,
첫 번째 베이스를 놓친 것 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첫 번째 베이스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스스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드렸다면,
그런 다음에 무엇인가?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출석해야 하나요?’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에 꼭 출석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계약을 맺는 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계약 약관을 읽어가면서
‘너무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작은 글씨로 쓰여진
약관에 계약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건 없는 용서, 우릴 만드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원한 삶!’을 감격가운데 영위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갑자기 ‘약관에 작은 글씨로 뭔가 쓰여있었지!

그래, 교회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특권이자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남, 교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미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피부색의

다양한 문화의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세계적인(글로벌) 가족을 모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에서 모든 글로벌 가족이

모일 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 일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몸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창조주를 따르고,

셀 수 없도록 많은

글로벌 가족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굉장한 무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업적을 경배하는

그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지역마다

글로벌 가족의 일부와

지금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기쁨과 특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지금 약간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며,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모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약간의 경험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게 내 제안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의견이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계명이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격적이지

절대로 개인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서로를 만나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남 자체만으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보살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영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자라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계속 자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방법 중의 하나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있어,

얼마나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가르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 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출석할 시간이 없어.

잘 아시잖아요. 매우 바쁩니다! 아마도 5주에 한번이나,
6주에 한번씩은 다닐 수 있어도ㄷ,

잘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기적인 헌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분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지만, 모든 것을 할 시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루에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짧을 때,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첫 번째 베이스부터 가라.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베이스부터 가지 마라.'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인격적이지
절대로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대한 보좌 주위에 모이기 전까지

서로를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특권으로 보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조에서
말씀을 나눠보세요.

토론할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몇 분간 말씀을 나눠보세요.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 Lee McMunn, 2011

All rights reserved. Except as may be permitted by the Copyright Ac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Published b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 Limited.

All Korean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 Korean Bible Society.

10Publishing, a division of 10ofthose.com
Unit 19 Common Bank Industrial Estate, Ackhurst Road, Chorley, PR7 1NH, England.
Email: info@10ofthose.com
Website: www.10ofthose.com

© Lee McMunn, 2011